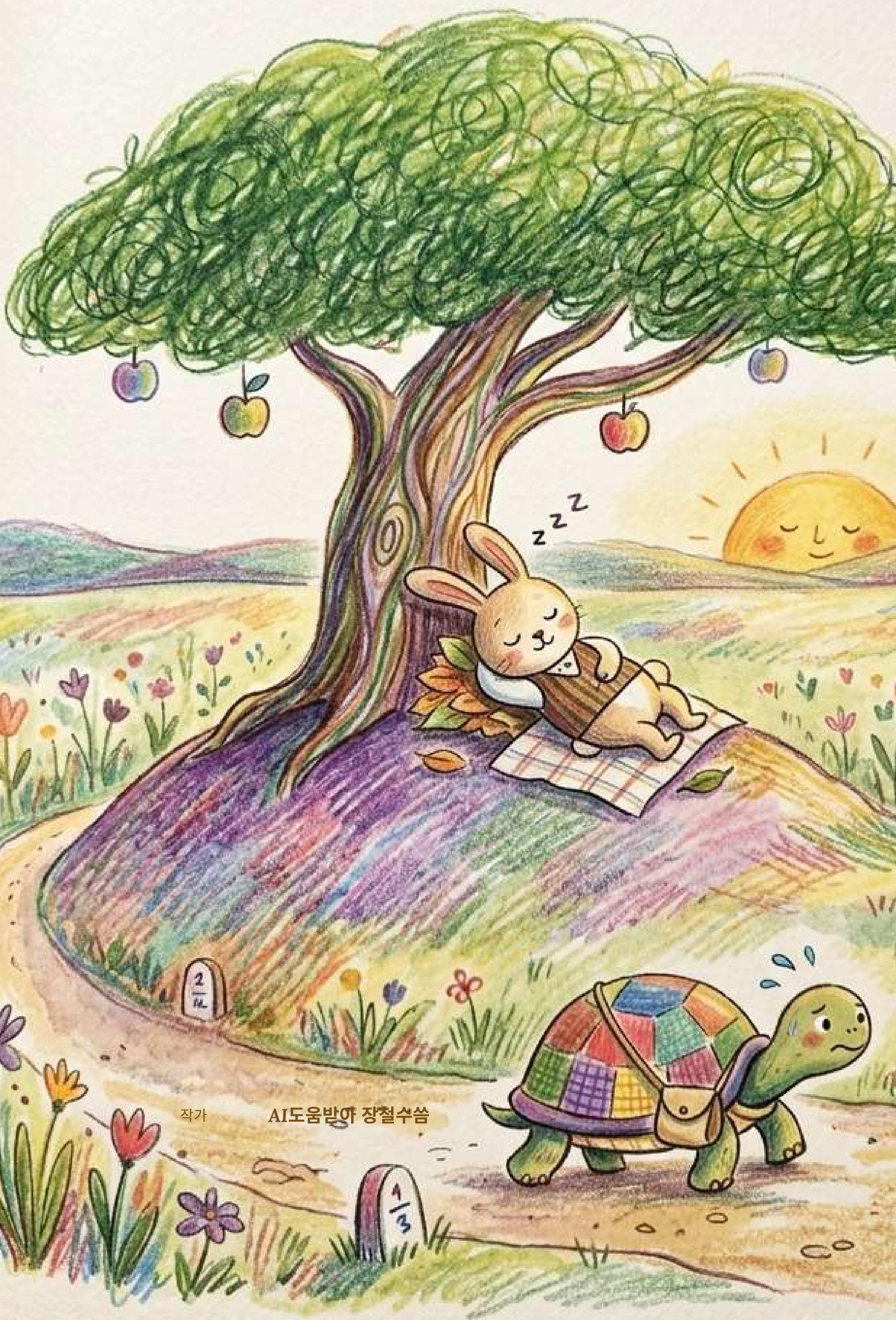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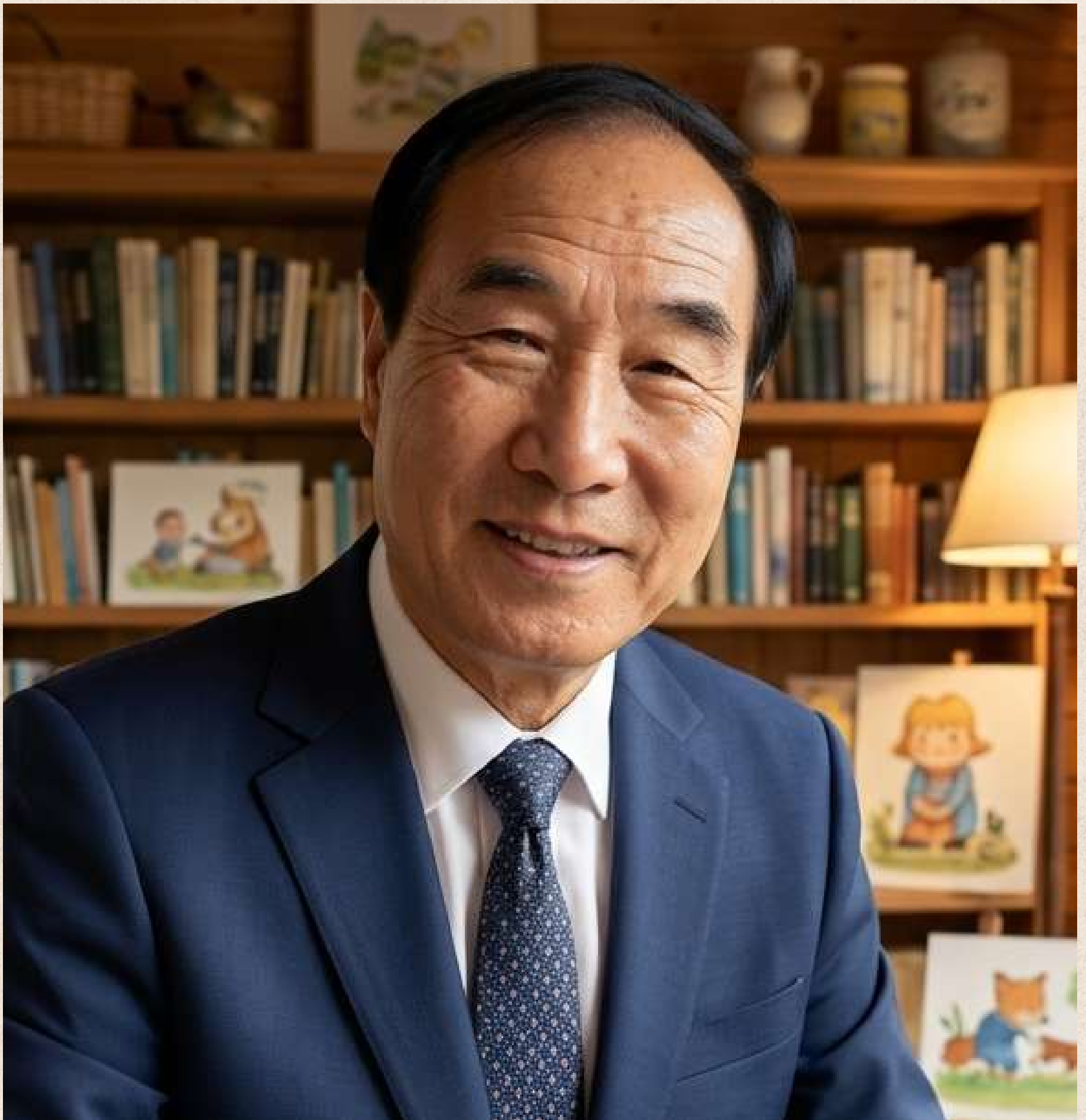
토끼와 거북이



작가

AI도움받아 장철수쌤

작가프로필



아름다운 고향 부안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살아가며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이야기로 길어 올립니다. 시간이 날 때면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곳에서 얻은 건강한 영감을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곤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처럼, 머무는 곳마다 아늑하고 풍성한 온기를 전하는 다정한 작가입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하늘 위로 초록빛 데이터 오로라가 살랑살랑 흐르는 신비로운 AI 숲이 있어요.

이곳 동물들은 저마다 편리한 여러 친구와 인공지능을 일상처럼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숲속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화면들이 빛나고, 하늘에는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요.

이 아름답고 신기한 숲에 아주 특별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2장

한 친구는 최고 성능의 제트 팩을 메고 다니는 성격 급한 토끼 ‘슁슁이-AI’예요.

슁슁이는 바퀴 신발을 뽕뽕 굴리며 언제나 숲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른 친구는 투명한 유리 등껍질 안에 빛나는 회로를 가진 신중한 거북이 ‘보그’예요.

보그는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저벅저벅 느긋하게 걸어 다녔지요.



3장

어느 날, 숭숭이가 보그의 앞을 뺑 가로
막으며 커다랗게 소리쳤어요.

" 보그야! 너는 왜 그렇게 느릿느릿 걷
는 거여? 내 최신 제트 팩 좀 잘 봐, 세
상에서 제일 빠르당께!"

숭숭이는 바퀴 신발을 빙글빙글 돌리며
보그의 주위를 맴돌며 놀렸어요.

과연 보그는 숭숭이의 놀림에 화를 내
었을까요?



4장

보그는 화를 내지 않고, 등껍질 속 회로를 반짝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슌슌아, 천천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함이야. 우리 저기 데이터 호수까지 시합 한번 할래?"

슌슌이는 코방귀를 꺾며 제트 팩 시동을 부릉 태웠어요.

"좋아! 누가 진짜 1등인지 지금 당장 보여 주마!"



5장

"준비, 탕!" 심판 올빼미의 신호가 숲에 울려 퍼졌어요.

송송이는 얼른 최첨단 지름길 앱을 켜고 번개처럼 땀 사라졌어요.

"하하! 앱이 알려준 지름길로 가면 내가 무조건 1등이야!"

멀어지는 송송이를 보며, 보그는 서두르지 않고 첫 발걸음을 떼었어요.



6장

보그는 길을 걷기 전, 머릿속에 쓱 넣어
둔 숲속 지도를 곰곰이 떠올렸어요.

‘데이터 호수로 가는 길은 이쪽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해.’

보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숲
의 나무와 바람을 느끼며 저벅저벅 걸
어갔어요.

한편, 저 멀리 앞서간 숭숭이는 지금 어
디쯤 가고 있을까요?



7장

한참을 신나게 달리던 숭숭이 눈앞에 반짝이는 '업그레이드 과자 가게'가 나타나났어요.

알록달록한 과자들이 숭숭이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오메! 저걸 먹으면 힘을었어 내 제트팩이 더 가벼워지고 빨라지겠는디?" 하며

숭숭이는 시합도 잊은 채 가게 앞을 기웃거리며 과자를 맛있게 오물오물 먹기 시작했어요.



8장

슌슌이가 달콤한 과자를 먹는 사이, 보 그는 한눈을 팔지 않고 묵묵히 숲길을 걸어갔어요.

드디어 과자를 배불리 먹은 슌슌이가 다시 출발하려고 제트 팩을 켜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의 화면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숲속 깊은 곳, 통신이 뚝 끊겨 버리는 위험한 먹통 구역에 들어선 거예요.



9장

"오메! 시방 내비게이션이 왜 안 된다
냐? 어디로 가야 한대?"

지름길 앱이 멈추자, 숭숭이는 길을 잃
고 발만 동동 구르며 입술을 꼭 물었어
요.

그때, 보그가 허둥대는 숭숭이의 곁을
저벅저벅 유유히 지나갔어요.

보그는 미리 준비해 둔 머릿속 지도를
보며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갔지요.



10장

결국 보그가 데이터 호수 결승선에 먼저 골인했어요!

뒤늦게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숭숭이가 엉덩이를 쿵 찡으며 물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보그야, 너는 앱도 없이 어떻게 길을 찾았냐?"

보그는 시원한 물을 건네며 싱긋 웃었지요.

"기계만 믿으면 지치는 법이여. 스스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진짜 실력이지!"

두 친구가 마주 보며 웃는 소리가 호숫가에 멀리 퍼져 나갔답니다.

